

경기·인천지역 중학교 가정실 실내 환경과 활용 실태¹⁾

소 북 례* · 조 재 순**

탄현중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Interior Environment and Practical Usages of the Home Economics Practice Room in Middle School of Gyeonggi and Incheon

So, Bok-Ryea* · Cho, Jae-Soon**

*Teacher, Tanhyon Middle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nterior environment, teaching equipments and tools, practical usages and related problems of the Home Economics practice room as a special room of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 through a mail from 150 teachers charged in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of the middle schools in the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re were Home Economics practice rooms in the most of the middle schools. The room was used for the Home Economics class as well as for many other activities, which sometimes disturbed the class in the room. The frequency of the usage of the room was relatively low and limited mostly to the cooking class and somewhat sewing class because of the lack of environmental equipment and facilities such as heating, cooling, ventilating systems and furnishings such as table, chair as well as teaching materials, etc. Teachers wanted to use the room for all units of the Home Economics class applied to various teaching methods in the room. The improvement of the interior environments and teaching materials could facilitate the variety of the class in the Home Economic practice room.

주제어(Key words) : Home Economics practice room(가정실), interior environment(실내 환경), practical usages(활용실태)

1) 교신저자: 소북례(E-mail: bokryea@hanmail.net)

I. 서 론

학교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 교실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장소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교육 시설로서 학생들이 오랜 시간 학습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개별학생의 개성과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별 평가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과 중심의 교실환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실의 중요성에 비해 대부분의 학교는 편복도형으로 획일적이며 일률적인 크기와 형태, 부실한 교실환경, 부족한 시설·설비와 교구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수업, 건강 악화, 교사의 수업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각 교과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교과에서 그 교과 특성에 맞는 시설·설비를 갖춘 특별교실이 교과 전용교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확충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학교 시설·설비에 대한 규정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만든 교사 면적과 교사 내의 조도, 실내온도, 소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교육법전, 2002)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기, 자연조명, 실내습도를(학교보건법시행규칙, 2002. 4. 18)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교구 설비 기준은 각 시·도 교육감, 일부는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학교마다 시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자칫 부실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학교시설·설비의 부실은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가정과는 개인과 가정, 산업생활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정보화와 세계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교육인적자원부, 1998).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천적 내용에 부합되는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실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가정교과 전용수업 학습공간인 가정실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가사실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성정환, 1989; 이정숙, 1999; 장정진, 1992; 조명숙, 1986)와 시

설·설비에 관한 연구(강혜숙, 1992; 김미숙, 1986; 김선옥, 2000; 김선희, 1989; 김운숙, 1991)가 대부분으로 가정실의 실내 환경 전반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또한 현재 각 중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정실은 지난 교육과정에서 중시해 오던 가사 수업 중 조리수업 위주의 실습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직도 가사실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활용도가 낮고 시설·설비가 부족하여 가정과 수업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교공간과 비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윤일경, 1997)는 지적이 있으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을 수행하기에 적절하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실을 교과중심의 전용실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 가정실의 일반현황, 실내 환경, 설비와 교구, 가정실의 활용 실태와 수업방법, 가정실 요소별 개선 필요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결과가 가정실 학습공간에서 교과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 가정실이 교과중심 교실로 활성화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II. 문헌 고찰

1. 교육시설과 환경기준

교육시설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1997. 9. 23 제정, 2001. 10. 31 일부개정)을 따르고 있다. 이 규정은 학교시설·설비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시설이 지역 실정에 따라 자치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사 기준 면적은 학생 수에 따라 102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세 가지로 구분되며, 학교 건물 총 면적에 대한 기준이나 가정실과 같은 특별교실의 종류,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의 가정실 보유현황을 보면(학교 실태 조사 통계집, 1998), 경기도는 전체 378개 중학교 중 325개교(86.0%), 인천광역시는 98개 중학교중 80개교(81.6%)에서 가정실

〈표 1〉 경기도 중학교 가정실 교구 기준 2004년 현재

교구종목	6학급 기준	필수	권장	교구종목	6학급 기준	필수	권장
냉장고	1	○		키친툴세트		○	
가스렌지	7	○		도마		○	
튀김냄비	6	○		칼		○	
양푼	12	○		쟁반		○	
저울	1	○		재단가위		○	
냄비	12	○		핑킹가위		○	
프라이팬	12	○		구멍양푼		○	
다리미	2	○		슬라이드환등기			○
VCR	1	○		이동식화이트보드			○
TV(29" 이상)	1	○		실물화상기			○
OHP	1	○		반상기(5첩)			○
세탁기	1	○		밥상			○
압력솥	6	○		재봉틀			○

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학교일수록 가정실의 보유율이 낮다(윤일경, 1997). 이러한 가정실 보유 현황은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남·여 중학생이 모두 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기도내 중학교의 14.0%와 인천광역시 중학교의 18.4%가 가정실이 확보되지 않아 일반교실에서 특별 시설설비가 필요한 가정교과관련 실험·실습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내부 환경에 대한 규정은 학교 보건법(교육법전, 2002)에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소음 조절에 대한 기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02. 4. 18)이 제시되어 있다. 이 규정 가운데 환기 기준에서는 창을 자연 환기와 기계적 설비를 이용한 환기로 제시하고 있다. 채광기준은 자연조명과 인공조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공조명의 기준은 보통 작업의 최저 허용 조도인 300lux 이상이다(KS 조도 기준). 실내 온도 및 습도 기준에서 실내 온도는 이 규정 이전에는 18℃로만 제시되었으나 실내 온도 기준을 난방 온도와 냉방 온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소음 기준은 일반 주거 지역의 낮 소음 기준(통계청, 2000)인 55db 이하이다. 기존 학교는 규칙 시행일(2002. 4. 18)부터 5년 이내에 이 개정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학교 보건법 시행 규칙 부칙 2항). 가정실의 실내환경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2. 가정실 시설·설비

교구 기준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최소한의 교구(6학급 기준)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학교는 학교장 책임으로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필수 교구와 권장 교구로 구분하여 학교 교구 기준을 설정하여 학교 교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에 맞는 현대적 교구를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학교 가정실 교구 기준은 〈표 1〉과 같다.

이 기준은 6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정된 것으로 현재 교과명칭과 교육내용이 크게 달라진 7차 교육과정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가정과 교구 기준이 조리용과 재봉용에 편중되어 있으며, 여러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청각 교구 중 VCR이나 OHP는 필수 종목으로, 실물화상기는 권장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학교와 교실의 시설·설비를 연구한 선행연구(고영진, 1994)에서는 가정실에서 가정교과 모든 단원을 교수학습 할 수 있도록 주거 비품 학습 센터, 음식과 영양을 위한 학습 공간, 의류와 옷감의 교육 실습, 가족 건강 교육을 위한 공간, 가족생활 공간, 교사 사용 공간 등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가정실 수업 활동

가정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교구 보유실태나 교육과정 분석, 실습 내용분석 등에 관한 것이 있으며, 가정 실습실의 수업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로 조리 실습의 내용이나 평가에 관한 내용이 연구되고 있어서 가정 실습실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나 환경 구성, 시설·설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중학교 가정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은 조리 수업 63.1%, 의생활 수업 11.6%로 주로 조리 실습이었으며(김윤숙, 1991), 연간 조리실습 횟수는 주로 1~2회 이었다(김경애, 1991; 김정미, 1989). 이밖에 조리 원리와 세탁 효과, 섬유류의 종류에 대한 실험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습실의 활용이 낮은 이유는 시간 제약(김윤숙, 1991), 실습비 예산 부족(강혜숙, 1992; 김윤숙, 1991), 시설·설비 부족(윤일경, 1997)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실에 구비한 교구 현황은 보유율이 낮을 뿐 아니라(김윤숙, 1991) 현 교구 설비 기준이 교육 과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교구를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강혜숙, 1992) 지적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가정실의 실내환경과 전반적인 활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실이 있는 경기도내 소재 325개 중학교와 인천광역시 소재 80개 중학교(총 405개)를 전집 표집하여 가정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도구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조사도구는 연구 대상자의 학교 특성 및 담당 교사의 특성, 현 가정실의 일반 현황, 가정실의 실내 환경, 설비와 교구의 실태, 가정실의 활용 실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설문지 설문 내용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개 중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가정실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02년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가정실이 있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405개 중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6월 20일에서 7월 20일 까지 한 달간 우편을 통해 실시하였다. 발송된 405부의 설문지 중 165부가 회수(회수율 40.7%) 되었으며, 그 중 응답 내용이 부실한 15부를 제외하고 150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ver. 7.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가정실의 일반 현황

1) 가정실 보유 실태

조사대상 학교의 90.6%가 전용 가정실을 1개씩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정실을 2개 이상 보유한 학교가 2.0%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에 전용 가정실을 갖고 있었다(표 2). 그러나 가정실을 기술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6.0%) 급식실과 병용하는 경우(0.7%)도 있었다.

7차 교육 과정에서 가정교과가 기술교과와 기술·가정교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술실과 공동 활용에 대해서는 가정실과 기술실이 각각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84.0%로 나타나 교과담당교사 대부분이 각각의 교과특성에 맞는 실습실을 보유하길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정실의 교과외의 용도 사용

가정실이 교과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가정실에서 가정수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47.4%에서 가끔 있으며, 매우 자주 있거나 자주 있는 경우가 29.3%로 나타나 가정실이 교과수업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이외의 활용은 행사시 음식준비, 학생특기적성, 특별활동, 교사 친목행사, 손님접대, 평생교육용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실이 교과외의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

〈표 2〉 가정실 보유 및 기술실과의 공동활용에 대한 의견

N=150

변 인	구 분	N (%)
가정실 보유	가정실 1개 보유	136 (90.6)
	가정실 · 기술실 공용 1개 보유	9 (6.0)
	가정실 2개 이상 보유	3 (2.0)
	급식실과 병용	1 (0.7)
	고등학교와 병용	1 (0.7)
기술실과의 공동 활용에 대한 의견	가정실과 기술실이 각각 필요하다	126 (84.0)
	공동 실습실이 필요하다	22 (14.6)
	가정실만 필요하다	1 (0.7)
	기술실만 필요하다	1 (0.7)

〈표 3〉 가정실의 교과외의 다른 용도 사용실태

N=150

변 인	구 분	N (%)
다른 용도 사용정도	전혀 없다	6 (4.0)
	거의 없다	29 (19.3)
	가끔 있다	71 (47.4)
	자주 있다	29 (19.3)
	매우 자주 있다	15 (10.0)
다른 용도 사용내용 (중복응답임)	교내행사 시 음식접대용	75 (50.0)
	학생특기적성용	63 (42.0)
	특별활동수업용	59 (39.3)
	교사친목도모용	30 (20.0)
	손님접대용	21 (14.0)
	평생교육용	20 (13.3)
	교과회의용	12 (8.0)
	학부모회의용	8 (5.3)
	봉사활동용	2 (1.3)
다른 용도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	전혀 없다	29 (19.3)
	거의 없다	66 (44.0)
	가끔 있다	40 (26.7)
	자주 있다	8 (5.3)
가정실 용도 변경 실태	매우 자주 있다	7 (4.7)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5 (3.3)
	용도 변경 논의만 있었음	22 (14.7)
	전혀 논의가 없음	123 (82.0)

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용도 사용으로 인해 36.7% 학교에서 가정교과 수업이 방해된다고 하였다. 일반교실 확보등과 관련하여 가정

실을 다른 교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의견에 대해선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경우가 82.0%를 차지해 대개의 학교에서 특별교실로서의 가정실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정실 실내 환경

가정실 실내환경에 대해서는 수업에 필수적인 온열 환경과 공기환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온열환경

가정실내 온열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알아본 결과<표 4>, 가정실내 난방기를 설치한 학교는 62.7%로 나타난 반면 난방 시설이 전혀 없는 학교가 30.6%, 난로를 사용하는 학교가 6.7%로 나타나 가정실내 난방 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난방기 미설치는 교실 기준 온도인 18℃를 유지할 수 없어 결국 겨울철에 가정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름철 수업 환경은 선풍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46.7%로 가장 많았고, 냉방기와 선풍기를 혼용하는 학교 6.7%, 냉방기가 설치된 학교 9.3%, 아무 시설이 없는 학교가 37.3%로 나타났다. 실내온도가 적절한 학교는 20.0%뿐으로 특히 겨울철 실내온도가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다.

2) 공기환경

가정실내 공기 실태를 알아본 결과<표 5>, 가정실에서 악취가 약간 난다가 70.7%로 가장 많았고, 심

하게 난다가 20.0%, 냄새가 안 난다가 9.3%로 냄새로 인해 수업의 쾌적함을 방해받는 경우가 90.7%로 공기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악취발생의 원인에 대해 교사의 의견으로는 환기 부족이 6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습기(44.7%), 배수구(42.0%), 쓰레기(13.3%) 순이었다. 가정실 내에서 사용 중인 기계적 환기 시설은 벽면에 환기팬을 설치한 경우가 58.0%로 가장 많았고, 배기 후드 시설은 4.0%에 불과했다. 별도의 환기 시설이 없어 자연 환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38.0%나 되어 가정실내 공기환경의 질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3. 가정실 설비와 교구

가정실 설비와 교구는 가정실에 갖추어진 작업대, 의자, 개수대와 가스대, 교구와 수업자료로 알아보았다.

1) 작업대

가정실 내 작업대는 상판재료와 만족도, 작업대의 구조와 적합성, 선호하는 작업대 구조, 작업대의 이동성과 선호하는 작업대의 이동성에 대해 알아보았다<표 6>.

작업대의 상판 재료는 목재 틀에 스텐레스 스틸로 상판을 붙인 것이 6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틀과 상판이 모두 목재인 경우가 20.7%, 모두 스텐

<표 4> 가정실 온열환경

N=150

변 인	구 분	N (%)	
난방기	난방기 설치	94 (62.7)	
	난로 사용	10 (6.7)	
	시설 없음	46 (30.6)	
냉방기	선풍기 사용	70 (46.7)	
	냉방기와 선풍기 혼용	10 (6.7)	
	냉방기 설치	14 (9.3)	
	시설 없음	56 (37.3)	
실내온도 적절성	매우 적당하지 않다	13 (8.7)	
	겨울	적당하지 않다	89 (59.3)
		적당하다	48 (32.0)
	여름	매우 적당하지 않다	4 (2.7)
		적당하지 않다	14 (9.3)
	적당하다	132 (88.0)	
4계절 모두 적당하다	30 (20.0)		

〈표 5〉 가정실 공기환경

N=150

변 인	구 분	N (%)
가정실 내 악취정도	심하게 난다	30 (20.0)
	약간 냄새가 난다	106 (70.7)
	냄새가 안 난다	14 (9.3)
악취의 원인 (중복응답)	환기부족	103 (68.7)
	습기	67 (44.7)
	배수구	63 (42.0)
	쓰레기	20 (13.3)
기계적 환기 시설	벽면 환기팬 시설	87 (58.0)
	가열대 위 배기후드 시설	3 (2.0)
	배기후드 와 벽면환기팬 병용시설	3 (2.0)
	환기시설이 없다	57 (38.0)

〈표 6〉 가정실 작업대

N=150

변 인	실 태	선호도	N (%)	
작업대 상판 재료	목재에 스텐레스 스틸 상판	94 (62.6)	매우 적당하지 않다	7 (4.7)
	모두 목재	31 (20.7)	적당하지 않다	51 (34.0)
	모두 스텐레스스틸	25 (16.7)	적당하다	83 (55.3)
작업대 구조	다리를 넣을 수 없는 구조	97 (64.7)	매우 적당하다	9 (6.0)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구조	53 (35.3)	트인 것이 좋다	141 (94.0)
			아무거나 상관없다	6 (4.0)
작업대 이동성	고정식	117 (78.0)	막힌 것이 좋다	3 (2.0)
	이동식	33 (22.0)	이동식이 좋다	97 (64.7)
			아무거나 상관없다	31 (20.7)
		고정식이 좋다	22 (14.6)	

레스 스틸인 경우가 16.7%로 나타났다. 작업대의 상판 재료에 대해서는 61.3%의 교사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38.7%의 교사는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상판재료가 적당하지 않은 이유로는 스텐레스 스틸 상판이 조리 수업 시에는 좋으나 조리수업 외의 수업 시 촉감이 차고 미끄럽고 특히 겨울철에 안 좋은 느낌을 갖게 한다고 했다. 현재 가정실은 조리수업 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수업, 특별활동 수업, 평생교육 등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 볼 때 교과와 전 영역수업과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갖는 상판재료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업대의 구조는 다리를 넣을 수 없는 구조가 64.7%

로 가장 많았으며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구조는 35.3%로 나타나 작업대 아래에 수납장을 설치해 다리를 넣지 못하는 구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대부분은(94.0%) 학생들이 발을 뺄 수 있도록 작업대 밑이 트인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작업대의 형태는 상판에 작은 서랍 정도만 붙인 밑이 트인 구조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 중인 작업대는 고정식이 78.0%이었으나 64.7%의 교사들은 이동식 작업대가 배치하기 자유롭고 개수대나 가스대를 따로 분리할 수 있어 다양한 수업에 활용 할 수 있어 좋다고 하였다.

〈표 7〉 가정실 의자

N=150

변 인	구 분	N (%)
의자 종류	등근 나무 의자(stool)	129 (86.0)
	사각 접이 의자	18 (12.0)
	회전식 원형 의자	2 (1.3)
	의자 없음	1 (0.7)
의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편하다	20 (13.3)
	불편하다	86 (57.4)
	적당하다	42 (28.0)
	매우 적당하다	2 (1.3)
선호하는 의자형태	등받이 의자	41 (27.3)
	회전식 등받이 의자	31 (20.7)
	회전식 원형 의자	39 (26.0)
	등근 나무 의자(stool)	29 (19.3)
	사각 접이 의자	10 (6.7)

2) 의자

현재 가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의 종류는 등근 나무 의자(stool)가 86.0%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다음은 사각 접이 의자 12.0%, 회전식 원형 의자 1.3%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근 나무 의자를 사용하고 있었다(표 7). 의자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불편하다가 70.7%, 적당하다가 29.3%로 대부분의 교사가 현 의자를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등받이 의자(48.0%)나 회전식 의자(46.7%)를 선호하고 있었다.

3) 개수대와 가스대

개수대는 작업대에 함께 설치한 형태가 74.0%로 가장 많았고 개수대를 따로 벽면에 설치한 형태가 26.0%로 나타났다(표 8). 교사가 선호하는 개수대 설치 형태는 작업대에 함께 설치한 것이 좋다가 70.0%, 따로 벽면에 설치한 것이 좋다는 의견이 30.0%로 나타나 현재와 같이 개수대를 작업대와 함께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가스대는 작업대에 함께 설치한 형태가 70.0%로 많았고, 따로 벽면에 설치한 형태가 23.3%, 이동식 가스레인지도 6.7% 나타났다. 교사가 선호하는 가스대 설치 형태는 작업대와 함께 설치한 것이 좋다가 68.0%로 많았고 따로 벽면에 설치한 것이 좋다가

〈표 8〉 가정실 개수대와 가스대

N=150

변 인	구 분	N (%)
개수대 설치형태	작업대 함께 설치	111 (74.0)
	따로 벽면 설치	39 (26.0)
선호하는 개수대 설치형태	작업대 함께 설치	105 (70.0)
	따로 벽면 설치	45 (30.0)
가스대 설치형태	작업대 함께 설치	105 (70.0)
	이동식 가스레인지	10 (6.7)
	따로 벽면 설치	35 (23.3)
선호하는 가스대 설치형태	작업대 함께 설치	102 (68.0)
	따로 벽면 설치	48 (32.0)

〈표 9〉 가정실용 현대적 교구 및 수업 자료

N=150

분 야	교 구	보 유 N (%)	추가보유희망 N (%)
식생활용	식기 세척기	0 (0.0)	44 (29.3)
	식기 소독기	8 (5.3)	63 (42.0)
	순간 온수기	2 (1.3)	56 (37.3)
	전자 저울	10 (6.7)	72 (48.0)
의생활용	비이커	14 (9.3)	47 (31.3)
	현미경	2 (1.3)	53 (35.3)
	알콜 램프	2 (1.3)	41 (27.3)
	탈수기	4 (2.7)	40 (26.7)
	세탁기 (필수)	9 (6.0)	45 (30.0)
	섬유 샘플	11 (7.3)	96 (64.0)
주생활용	가구 모형	5 (3.3)	65 (43.3)
	조명 기구	4 (2.7)	54 (36.0)
	조도계	1 (0.7)	61 (40.7)
	소음계	1 (0.7)	55 (36.7)
	실내 온도, 습도계	4 (2.7)	43 (28.7)
	실내마감재료 샘플	3 (2.0)	69 (46.0)
자원관리용	재활용품 샘플	3 (2.0)	64 (42.7)
	비누 제조용품	4 (2.7)	59 (39.3)
	소비자 피해 물품	3 (2.0)	61 (40.7)
시청각기자재	프로젝션 TV (공통)	16 (10.7)	95 (63.3)
	VCR (필수)	19 (12.7)	84 (56.0)
	컴퓨터 (공통)	14 (9.3)	90 (60.0)
	OHP (필수)	13 (8.7)	65 (43.3)
	실물 화상기 (공통)	12 (8.0)	82 (54.7)

* 중복응답임

32.0%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면 아직도 많은 교사가 조리용에 적합하도록 개수대와 가스대가 포함된 작업대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대는 작업대의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수업 내용별 조별 활동을 위한 작업대 배치의 융통성이 낮고 바닥의 배관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미관상 좋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다.

4) 현대적 교구 및 수업 자료

가정실의 교구 중 필수교구인 조리과 재봉 관련 교구는 대부분 학교에서 갖추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권장교구와 기타 기술·가정 교과와 관련 있는 교구와

수업자료 보유실태와 보유 희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9〉.

필수 교구를 제외한 현재 가정실 내 보유하고 교구의 종류는 조사항목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학교별 보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VCR(12.7%), 프로젝션 TV(10.7%), 컴퓨터(9.3%), 비이커(9.3%), OHP(8.7%), 실물화상기(8.0%), 섬유 샘플(7.3%), 전자저울(6.7%), 세탁기(6.0%) 등이 식기세척기, 조도계, 소음계, 순간온수기, 현미경, 알콜램프 보다 보유율이 높았다.

추가보유를 희망하는 것은 보유율보다 모두 높았으며 특히 시청각 기자재인 프로젝션 TV(63.3%), 컴퓨터(60.0%), VCR(56.0%), 실물 화상기(54.7%)

등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용으로는 전자저울이(48.0%), 의생활용 교구로는 현미경(35.3%)과 세탁기(30.0%)가 섬유 샘플(64.0%)의 뒤를 이었고, 주생활용으로는 실내 마감재료 샘플(46.0%)을 그리고 자원 관리용에서는 재활용품 샘플(42.7%)을 보유하길 희망하고 있었다.

3. 가정실 활용실태

1) 가정실 수업에 대한 의견

가정실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가정실을 이용한 수업 빈도, 가정실 수업에 대한 학생의 반응

과 불만 요인, 가정실에서의 다양한 학습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그 이유, 가정실에서 희망하는 수업 분야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표 10).

가정실을 이용한 수업을 전혀 또는 거의 안 한다는 응답이 40.0%, 하려고 하는 교사가 60.0%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가정실 수업에 관한 반응은 좋아한다가 72.0%로 나타났으며, 별 반응이 없다가 24.7%, 싫어한다가 3.3%로 나타났다.

가정과 교사들이 파악한 학생들이 가정실 내에서 수업을 할 때 야기되는 불만요인은 가정실 환경의 열악함이 5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작업대 구조의 불편함(19.3%), 이동의 불편함(13.3%), 의

<표 10> 가정실 수업에 대한 의견

N=150

변 인	구 분	N (%)
가정실 이용 수업	항상 안 한다	2 (1.3)
	거의 안 한다	58 (38.7)
	거의 한다	78 (52.0)
	항상 한다	12 (8.0)
가정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싫어한다	5 (3.3)
	별 반응이 없다	37 (24.7)
	좋아한다	96 (64.0)
	매우 좋아한다	12 (8.0)
가정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요인	가정실 환경의 열악함	76 (50.7)
	작업대 구조의 불편함	29 (19.3)
	이동의 불편함	20 (13.3)
	의자의 불편함	19 (12.7)
	교재교구의 부족	6 (4.0)
가정실에서의 다양한 학습 활동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7)
	필요하지 않다	9 (6.0)
	필요하다	86 (57.3)
	매우 필요하다	54 (36.0)
가정실 수업 필요이유(중복응답임)	교구,시설 활용으로 수업효과증진	124 (82.7)
	자료를 들고 다니지 않음	64 (42.7)
	토론, 활동의 자유로움	46 (30.6)
	소음 발생에서 자유로움	39 (26.0)
가정실에서 희망하는 수업 분야	모든 단원	100 (66.7)
	학생활동이 필요한 단원	41 (27.3)
	식생활, 의생활 단원	4 (2.7)
	식생활 단원만	1 (0.7)
	기술분야 중 적당한 단원	4 (2.6)

자의 불편함(12.7%), 교재 교구의 부족(4.0%)등 순으로 높게 나타나 앞에서 교사의 불만요인이었던 환기 장치와 작업대와 의자 개선의 필요성 등이 학생의 불만요인에 대한 인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가정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3.3%로 거의 대부분의 가정교사가 가정실에서 다양한 학습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가정실 내에서 수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구와 시설을 활용하여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가 8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수업 자료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42.7%, 토론과 활동이 자유롭다가 30.6%, 소음 발생에서 자유롭다가 26.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실에서 희망하는 수업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66.7%로 가정과 전용 교과실로서의 가정실을 선호하고 있으며, 학생활동이 필요한 단원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7.3%, 식생활과 의생활 단원만 하는 것이 좋다가 2.7%, 기술 분야 중 적당한 단원도 가정실에서 수업하는 것이 좋다가 2.6%, 식생활 단원만 하는 것이 좋다가 0.7%로 나타나 많은 교사들이 가정실에서 교과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수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2) 가정실 수업실태

가정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실태를 학년별, 단원별, 유형별로 그 횟수를 알아본 결과(표 11), 1학년의 가정실 수업은 가족생활에서 토의식 10.0%, 시청각식 6.7%, 실습식 4.7%, 강의식 4.0%순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은 실습식이 93.3%로 가장 많았고 관찰식은 6.7%였으나 그 외의 수업유형은 3.0%이하로 매우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식생활 단원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조리 실습을 1년에 평균 1.7회 실시하고 있었으며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6.7% 있었다.

2학년 의생활 수업은 실습이 약간 이루어지고 있었으며(36.0%) 그 외에는 관찰 수업이 (6.0%) 이루어지고 있어 옷 만들기과 섬유 단원에서 실습과 관찰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관리 단원에서는 실습 유형의 수업이 8.7%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외에 토의 수업이 4.7%, 그리고 강의 및 시청각 수업이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3학년의 경우는 가족생활에서는 토의수업이 5.3%, 강의 및 시청각 수업이 각각 2.0%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식생활 단원에서는 1학년과 마찬가지로 실습 유형의 수업이 90.7%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횟수는 연간 평균 1.4회로 1학년보다 낮았다. 주생활 단원에서는 실습 유형으로 10.7%가 실시

〈표 11〉 영역별 수업 유형별 가정실 활용 실태

N=150

수업 유형	1학년				2학년				3학년				계 N		
	가족생활		식생활		의생활		자원, 환경		가족생활		식생활			주생활	
	N (%)	연평균 (회)	N (%)	연평균 (회)	N (%)	연평균 (회)	N (%)	연평균 (회)	N (%)	연평균 (회)	N (%)	연평균 (회)		N (%)	연평균 (회)
강의	6 (4.0)	2.8	5 (3.3)	2.4	5 (3.3)	3.4	4 (2.7)	1.0	3 (2.0)	4.7	4 (2.7)	1.3	4 (2.7)	1.0	31
시청각	10 (6.7)	2.2	3 (2.0)	1.3	4 (2.7)	1.0	5 (3.3)	1.2	3 (2.0)	1.3	3 (2.0)	1.7	5 (3.3)	1.0	33
토의	15 (10.0)	1.5	4 (2.6)	1.5	4 (2.7)	1.3	7 (4.7)	1.6	8 (5.3)	1.3	0 (0.0)	0.0	3 (2.0)	1.0	41
관찰	2 (3.3)	1.0	10 (6.7)	1.3	9 (6.0)	1.3	3 (2.0)	1.0	1 (0.7)	1.0	0 (0.0)	0.0	7 (4.7)	1.0	32
실습	7 (4.7)	2.6	140 (93.3)	1.7	54 (36.0)	2.7	13 (8.7)	1.5	1 (0.7)	3.0	136 (90.7)	1.4	16 (10.7)	1.8	367
모두	3 (2.0)	6.0	3 (2.0)	5.7	2 (1.3)	16.5	2 (1.3)	9.5	2 (1.3)	5.5	1 (0.7)	1.0	1 (0.7)	7.0	14

* 평균 횟수는 연간 횟수이며 중복응답임.

〈표 12〉 영역별 가정실 활용 희망 수업 유형

N=150

영역 \ 유형	식생활 N (%)	의생활 N (%)	주생활 N (%)	가족생활 N (%)	자원,환경,소비 N (%)
강의	35 (23.3)	34 (22.7)	39 (26.0)	48 (32.0)	42 (28.0)
시청각	51 (34.0)	66 (44.0)	80 (53.3)	61 (40.7)	69 (46.0)
토의	24 (16.0)	28 (18.7)	40 (26.7)	96 (64.0)	76 (50.7)
관찰	29 (19.3)	42 (28.0)	29 (19.3)	12 (8.0)	29 (19.3)
실습	120 (80.0)	79 (52.7)	55 (36.7)	11 (7.3)	34 (22.7)
모두	25 (16.7)	30 (20.0)	23 (15.3)	18 (12.0)	26 (17.3)

* 중복응답임

되어 실습실 활용 횟수가 매우 저조하였다.

요약하면, 가정실 내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식생활 단원 중 조리 실습이 주를 이루며 2학년은 식생활 단원이 없어 1년 동안 가정실에서 수업이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학교가 많으며, 의생활 단원에서 옷 만들기, 섬유 실험이나 섬유 샘플 관찰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3) 영역별 가정실 활용에 적절한 수업 유형

교사들이 영역별로 가정실에서 수업하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업 유형을 살펴본 결과(표 12), 식생활에서는 실습(80.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시청각(34.0%), 강의(23.3%), 관찰(19.3%), 토의(16.0%), 모두(16.7%) 순으로 나타나 식생활에서는 실습 수업이 가정실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의생활에서는 실습(52.7%), 시청각(44.0%), 관찰(28.0%), 강의(22.7%), 토의(18.7%), 모두(20.0%) 순으로 나타나 의생활 단원에서도 실습 유형과 시청각 수업이 가정실에서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생활에서는 시청각 유형의 수업이 53.3%로 가장 많았고, 실습(36.7%), 토의(26.7%), 강의(26.0%), 관찰(19.3%), 모두(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에서는 토의식 수업이 가장 많았으며(64.0%) 그 다음으로 시청각(40.7%), 강의(32.0%), 관찰(8.0%), 실습(7.3%), 모두(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관리, 환경, 소비에서는 토의 수업이 50.7%로 가장 많았고 시청각(46.0%), 강의(28.0%), 실습(22.7%), 관찰(19.3%), 모두가 17.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가정교과 수업은 실습이외에도 시청각 수업이나 관찰, 토의 등 다양하게 가정실 활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한 교구 보유가 극히 저조하여 교사들의 희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식생활 단원에서 뿐 아니라 가정교과 모든 단원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수업이 가정실에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중학교 가정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실의 일반 현황, 실내 환경, 설비와 교구, 활용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가정실이 있는 405개 중학교의 가정실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한 165부 중 15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가정실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전용 가정실을 1실 보유하고 있고, 교사 대부분은 가정실과 기술실이 각각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기술과 가정교과가 병합이 되어도 가정실과 기술실은 그 내부 환경 조건이 차별화되므로 각각 보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 명칭은 가사실로 된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과명을 반영하여 가정실로 사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정실 실내 환경 가운데 온열환경은 특히 난방 시설 미설치로 겨울철에 가정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름철 냉방은 선풍기나 창문

통풍에 의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냉·난방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가정실의 연중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공기환경은 환기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많아 실내 환경 조건 중 가장 열악하였으며 거의 모든 교사들이 가정실 실내공기환경에 불만족하였다. 따라서 공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기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실의 설비와 교구 중 작업대 구조는 다리를 넣을 수 없는 구조가 많았으나 교사들은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구조를 선호하고 있었다. 작업대는 대부분이 고정식이었으나 많은 교사들은 이동식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다리를 뺄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한 작업대가 갖추어지면 가정실 수업을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자는 대부분 등근 나무의자(stool)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등받이가 없어 불편하므로 등받이가 있거나 회전할 수 있는 의자를 희망하였다. 개수대와 가스대는 작업대에 부착된 것이 많았으나 이러한 형태는 작업대를 자유롭게 배치하기 어려워 수업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수대와 가스대가 벽면으로 분리 배치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시청각기기의 설치는 정보화 수업에 반드시 필요하며 가정과는 다양한 현장 정보가 필요하므로 가정실에 제습설비를 하고 시청각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가정실의 활용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정실 활용과 관련해서는 가정실에서 학생 생활의 조리뿐 아니라 모든 단원의 학습이 다양한 학습 활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가정실 사용 빈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각 단원 내용별로 실습, 토의, 시청각 등의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정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 주로 조리실습 위주로 된 가정실 시설을 개선하고 교구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실의 활용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교사의 수업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어 학생 입장에서의 문제파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학생 입장에서 발생하는 가정실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와 아울러, 2002년도에 마련된 교실 환경 기준이 5년 간 기존 학교에서 보완 개선될 예정이므로 이후 가정 교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가정실 활용 증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 투고일자 : 2004년 11월 8일

참 고 문 헌

- 강혜숙(1992). 가정과 실험실습 교구설비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기도 교육청(1997). 경기도 각급 학교 교구·설비 기준.
- 고영진(1994). 「학교와 시설」. 서울: 학문사.
- 교육인적자원부(1998).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2).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 김경애(1991). 중학교 가사과 실기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가정과학연구, 제1호, 79~117.
- 김선옥(2000). 가사실의 교과전용 교실화 및 창의적인 조리실습.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3), 27~30.
- 김선희(1989). 조리실습 운영 및 실습실 시설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1986).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숙(1991). 중학교 가정과 실습실 시설 및 운영실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1989). 중학교 조리실습에 대한 현황과 효율화 방안.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창간호, 1989, 58~59.
- 성정환(1989). 가정과 실험·실습 학습지도 개선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석현(1997). 열린교육을 위한 학교 건축물 개선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일경(1997). 중학교에서의 교과전용 교실제 운영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1999). 가정과 조리실습의 현황과 평가에 관한 실태분석-경기도 지역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1), 25~45.
- 장정진(1992). 중학교 가정과 실험실습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숙(1986). 가정과 조리실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2002). <http://www.moleg.go.kr> (2003. 1. 5).

〈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학교 가정 교과 특별실인 가정실의 실내 환경, 교구와 설비, 활용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자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의 가솔·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15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지로 수집되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학교는 가정실을 갖추고 있었다. 가정실은 가정 수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때때로 가정실에서의 수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가정실의 활용 실태는 저조하며 대부분 조리과 재봉수업으로 제한되었는데 그 이유는 실내 환경에서 냉·난방과 환기의 부적합, 작업대와 의자 같은 설비뿐만 아니라 교구 등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가정실에서 모든 단원의 가정수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정실의 실내 환경과 교구의 개선은 가정실에서의 다양한 수업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